



# 정교회주보

제2422호

2023.5.28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일본 도쿄 부활 대성당(일명 니콜라이 성당)은 일본 정교회를 대표하는 성당이다. 러시아의 니콜라이 주교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1891년 완공되었다. 붉은 벽돌과 흰색 대리석으로 지어졌으며, 돔과 첨탑이 있는 비잔틴 양식이다. 길이 52m, 너비 28m, 높이 33m 이며, 최대 1,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대성당은 1923년 관동 대지진으로 부분 파손되었으나 1929년 재건되었다.

부활 후 제7주일  
(제1차 세계 공의회 참석  
교부들 주일)  
성 에프티히스 주교순교자  
(제6조 • 조과 복음 10)

##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 1,2,3 응송 ..... 사도경 78~80
- 승천 찬양송 ..... 오순절 의식서 77
- 승천 입당송 ..... " " 79
- 제6조 부활 찬양송 ..... 82
- 성 교부 찬양송 ..... 오순절 의식서 82
- 성당 찬양송
- 승천 시기송 ..... 오순절 의식서 80
- 사도경 : 사행 20,16~18; 28~36; 260
- 복음경 : 요한 17,1~13 ..... 105
- 승천축일 성모송 ..... 259
- 승천축일 영성체성혈송 ..... 259
- '우리가 참 빛을' 대신 '승천 찬양송'

## 하느님을 품은 교부들의 가르침

**정**교 신자들이여, 온 세상에서 빛나는 니케아로 모인, 하느님을 품은 교부들을 오늘 다 함께 찬양합시다.

그들은 아리우스의 불경한 교리를 거부하고, 공의회를 통해 보편 교회에서 그들을 추방하였으며,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느님의 아들을, 본질이 같으시고 똑같이 영원하신 분으로 고백할 것을 명하셨도다.

그들은 이 가르침을 신앙의 신조 안에 새겨놓았으니, 그 거룩한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는 신앙의 확실한 보증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단 하나의 신성 안에서 본질이 같은 삼위일체를 흠송합시다.

거룩한 우리 교부들을 햇불로 이 땅에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참 신앙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느님 그리스도시여, 모든 것 위에 높이 영광 받으소서. 자비로우신 주 하느님이시여, 당신께 영광 돌리나이다.

'오순절 전례서'에서

# 관대함은 미덕일까요, 단점일까요?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 대주교



**관**대함은 미덕일까요, 아니면 많은 것을 너그럽게 허용하는 험령한 특성이므로 단점이 될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전자도 아니고 후자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둘 다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미덕이자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관대함을 행하는 동기와 이 행동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관대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베푸는데, 그 이유가 그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때 이 관대함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만약 우리의 관대함이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되고, 상대방이 겪고 있는 문제를 가볍게 경감시켜 주고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라면, 그때 이것은 미덕이 됩니다. 더욱이 만약 상대방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해를 끼쳤다면, 그때 나쁜 마음을 갖지 않는 것과 더불어 관대함을 보이는 것은 매우 큰 미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관대함이 낳을 결과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우리를 어리석다고 생각하며 대담하고 뻔뻔한 태도를 갖게 된다면, 우리의 관대하고 너그러

운 행동은 좋은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미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너그러움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한다면, 우리의 너그러움은 가치있는 것이 됩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본보기와 규칙은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라고 끌려온 여인에게 “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 어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요한 8,1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인이 깊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당신의 너그러운 자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 마음이 굳어지고 경직되는 것을 보셨을 때는, 채찍을 드시기도 했고(요한 2,15 참조) 특히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는 “화를 입을 것이다.”라고 엄하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마태오 23장 참조).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에 따라, 또 상대방의 태도와 행동에 따라, 분별력 있게 잘 판단하여, 관대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보이거나 또는 신중하고 엄격한 태도를 보여야겠습니다.

## 살인의 누명을 쓴 자 (2)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이것은 실화로, 지난 주보에서 이어집니다.)

**한**편, 그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정교회 신앙을 가르치던 42세의 여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녀 또한 교도소를 담당하는 사제의 영적 자녀였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헌신하는지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그를 만나게 되었으며, 그에게 결혼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축복받은 결혼을 하였고, 자녀도 두 명을 낳았습니다.

그 뒤 몇 년이 흐른 뒤, 살인이 일어났던 마을에 사는 어떤 사람이 심각한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는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통증으로 온몸이 아팠는데, 의사들이 아무리 진찰을 하고 검사를 해도 그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었으며, 심지어는 그 원인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비참한 모습으로 병원에서 돌아온 그는 울부짖으면서 자신이 바로 살인자이며, 4명의 거짓 증인에게 상당한 돈을 주어 당시 그 교차로를 지나치던 베드로를 고발하게 하였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살인자의 가족은 즉시 경찰을 불렀으며, 살인자는 자백서에 서명하고, 4명의 거짓 증인이자 공범을 지목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뒤에도 살인자는 평온을 되찾을 수가 없었고, 계속해서 악을 쓰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살인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그가 지나갈 때 몸을 숨겼습니다.

베드로를 대면할 살인자는 놀라서 두 눈을 크게 뜬 채로 그냥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요르고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그리고 신비의 성사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당신도 마찬가지로 회개와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요르고스를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춘 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요르고스의 두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35년이 흐른 뒤에야 마침내 하느님의 정의가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과 인내와 끊임없는 기도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승리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베드로의 그 이후의 삶은 그리스도인과 결혼하여 두 명의 자녀를 얻고 ‘교회와 같은 가정’을 꾸린 축복받은 삶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축복은 그의 가정 안에서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축복, 성인들의 보호, 천사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1999년에 80세로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였습니다. 90세인 교도소 담당 신부님이 그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줍니다. 신부님은 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베드로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천사와 대천사들이 그의 방안으로 몰려들어오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노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십자 성호를 그으면서, “내 천사, 내 천사여! 저는 이런 영예를 누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자마자 천사들은 그의 영혼을 거두었고, 그는 평안히 안식하였습니다.

## 주간 예배 안내

\* 6월 3일(토)  
영혼 토요일  
추도식 (폴리바 준비하세요)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 소티리오스 대주교 1주기  
추도 예배 안내  
오는 6월 10일(토)에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에서 소티  
리오스 대주교님 안식 1주기  
추도 예배가 거행됩니다.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참례  
를 원하시는 분은 각 성당에  
신청해주세요.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추도식

## 소 식

### ■ 서울 성당 유아 세례 성사

지난 20일(토), Robert Sauerberg-수잔나 박서정 부부의  
아들이 루가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 ■ 에티오피아 공동체 행사

지난 주일(21일), 대교구는 국내 거주 에티오피아 공동체  
가 주관한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를 위해 서울 성당 선교회관  
을 장소로 제공했습니다.

### ■ 서울 성당 음식 축제 개최

다음 주일(6월 4일 오순절)에 세계 음식 축제를 개최합니  
다. 많은 도움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 서울 성당 '평화의 장미 정원' 관련 기사

서울 성당에 조성된 평화의 장미 정원 관련 기사가 조선일  
보에 실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교구 홈페이지를 참조 바  
랍니다.

성인의 가르침

## 주님을 신뢰하는 영적 삶의 자세

살을 에는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겨울날, 니스테로  
사부가 일상복 위에 두꺼운 외투를 입고 성당에 가려고 길  
을 나섰다. 도중에 다른 은수자를 만났는데 그는 사부에게  
이렇게 물었다.

“형제여, 지금 어떤 가난한 사람이 당신께 와서 옷을 달  
라고 하면 당신이 입고 있는 옷 두 벌 중에 어느 것을 주시  
렵니까?”

“가장 따뜻한 옷을 줄 것입니다.” 사부가 대답했다.

“조금 더 내려가다가 다른 혈벗은 자가 당신을 보고 또  
옷을 달라고 하면요?”

사부는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나타내며 말했다.

“나는 기꺼이 그에게 다른 옷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은수  
쳐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내 몸 가릴 것을 보내주실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